

# 국내 대학생의 취업태도 및 취업준비 비용에 관한 연구<sup>†</sup>

정범석\* · 정화민\*\*

## 〈요 약〉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비용, 취업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있는 국내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비용지출의 실태와 취업효능감, 취업태도, 대학교 교육여건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생과의 취업비용과 취업태도, 교육여건,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알아봄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취업관련 정책과 업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4년제 대학생은 토익 등 영어교육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분석에서는 해외연수비용이 전문대생은 평균 809만원, 4년제 대학생은 1,559만원,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도 4년제 대학생이 202만원, 전문대생은 113만원, 의류잡화비용도 전문대생은 66만원, 4년제 대학생은 97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해외연수비용과 의류잡화비용의 차이검증에서는 컴퓨터경영계열, 전기전자계열, 디자인계열, 사회계열에서 사회계열 학생의 해외연수비용과 의류잡화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도 치아교정비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차이는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의류잡화비용에서 월 소득이 많은 가정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태도는 전문대생이나 4년제 대학생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효능감, 학교의 교육여건 인식의 경우 전문대생보다 4년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취업준비비용에서 해외어학연수비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유형별 지출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별 취업효능감, 학교교육여건의 인식도 4년제 대학생이 전문대생보다 더 높게 조사되었다. 자기효능감과 교육여건은 취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학에서의 취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과 전문대학은 자격증 교육, 4년제 대학은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 선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대학생 취업준비비용,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교육여건, 대학생 해외어학연수비용,  
대학유형별 대학생 취업준비비용

논문접수일: 2014년 08월 27일 수정일: 2014년 10월 2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0월 29일

<sup>†</sup> 이 연구는 2012년 유한대학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유한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주저자), cbs622@yuhan.ac.kr

\*\* 유한대학교 경영정보과 겸임교수(교신저자), vivahyatt@hotmail.com

www.kcf.go.kr

## I. 서론

최근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비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전국 남녀 대학생 2,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약 8명이 여름방학 때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응답했다(매일경제신문 2012. 7. 1).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이 예상하는 지출비용은 한 달 평균 32만1000원으로 2010년 1월 조사(27만1000원)에 비해 약 19% 증가했다.

4년제 대학 3학년의 예상지출비용은 34만2000원, 4학년은 34만1000원이었다. 반면 저학년인 2학년은 31만8000원, 1학년은 30만2000원으로 고학년에 비해 낮았다. 과거 대학생의 취업준비는 자격증이나 영어시험 등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면접대비 등을 위한 ‘스펙 쌓기’까지 유행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부재정지원에 있어 취업률 실적을 중시하다보니 각 대학에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관련 캠프운영과 취업특강 등으로 취업과 연관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국 대학별 취업률을 공지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학생지원에 대학생의 취업률이 크게 작용하는 바, 대학교에서의 취업교육도 강화하고 교육여건도 많이 개선해 가고 있다. 취업교육은 1인 강사가 15~16주간의 수업을 이끌어 가는 방식과 주차별로 강의 주제에 맞춰 다수의 강사가 투입되는 방식, 특강 형태의 취업교육이 강화되고 있다(조형래, 2011).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에서의 진로와 취업교육의 개설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운영방식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력서 작성법, 면접 보는 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인식, 취업에 대한 독립성, 취업정보 제공, 합리적인 취업선택 등 다양한 취업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다. 또한, 대학의 관점에서 취업률은 학교의 평가와 직결되어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준비비용이나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비용의 지출, 교육여건의 개선, 취업프로그램의 증대와 다양화도 결국 대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을 하려는 의지, 행동을 수행하고 노력하는 자세,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자기 효능감에 바탕을 둔 취업효능감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취업태도란 개인의 진로선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계획성과 독립성,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등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이태기, 1995,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비용, 취업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비용지출을 비교하면서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여건과 취업을 위한 개인의 취업효능감, 취업에 대한 개인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취업태도를 중심으로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여건과 취업효능감이 취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학에서의 학생 취업관련정책과 업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취업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진로발달 단계의 발달과업 중의 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Ginzberg의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선택을 2, 3가지로 결정하고, 진로에 대한 초점의 범위를 좁혀 나가는 탐색단계,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게 되는 구체화 단계, 직업을 선택 하거나 특정한 진로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은 특수화단계 등으로 구성된다(김완석·김선희, 2005 재인용). Gottfredson은 개인이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공간, 지적 수준, 성 유형에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보았고(김병숙, 2007), 진로발달 이론에서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진로발달 과업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실제 취업을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김병숙, 2009).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으로는 학점 관리, 외국어학습, 자격증취득, 직업훈련, 각종 시험준비 등이 있고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 등도 포함된다(민혜리, 2001). 자격증취득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강순희·박성재, 2002)와 오히려 여러 개의 자격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박성재, 200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위한 해외연수, 교육훈련, 컨설팅, 치아교정, 피부클리닉, 성형, 의료잡화의 구입 등의 취업을 위한 노력 등으로 설명하였다.

### 2. 취업준비비용

취업준비비용이란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취업준비비용으로는 어

학학습, 실무학습, 각종 시험준비학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취업태도와 그 비용에 대한 대학생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보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의 지출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전공계열과 상관이 있었고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이 취업준비비용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어학습 및 어학연수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해서는 어학연수 경험을 가진 졸업생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천수, 2009).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4년제 대학생 856명을 대상으로 어학연수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3%(174명)가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이고, 계획하는 비용은 1천 524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어학연수 기간은 9.3개월로 나타났다. 어학연수 장소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갈 것이다가 전체 응답의 77.6%로 나타났고, 일본이 12.1%, 중국 6.3%, 프랑스 1.1%, 러시아 0.6순으로 집계되었다. 비용 마련은 역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과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모아서 준비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원래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코스로서 활용되던 어학연수가 이제는 취업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대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는 실직적인 회화실력을 기르기 위한 것, 어학연수를 가지 않으면 서류전형 등 취업에 불리할 듯해서, 영어면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등의 이유로 나타나 직접적인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 2007).

자격증관련 비용지출도 자격증이 취업에 긍정적 영향과 오히려 많은 자격증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박성재, 2004; 김정숙, 2008)도 있지만 학창시절을 성실히 수행하고 취업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 자격증취득은 실보다 득이 많아 보인다.

박성재·반정호(2006)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의 효과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대학생의 장래 희망직업과 전공 일치여부에 따른 희망직업과 전공이 일치할 경우 대학생들은 전공을 기반으로 희망직업에 취업할 수 있는 구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취업준비를 하는 반면 불일치하는 대학생은 제2외국어 공부와 해외유학, 어학 연수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등 취업준비를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취업효능감

취업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취업과 관련된 분야로 확장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사회학습이론의 중심개념이면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기대나 확신을 나타낸다(Bandura, 1986, Zimmerman, 1989).

자기효능감 이론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영향력은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Bets & Luzzo, 1996).

자기효능감은 과거 성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몰입을 증가시키고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창희, 2010). 또한, 취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취업성도가 더 높았고 (Kanfer & Huline, 1985), 취업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면접 전형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취업효능감이 낮은 구직자에 비해 많았다(Moynihan 외, 2003).

높은 수준의 취업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직무탐색 행동의 빈도가 높았고 불안수준이 낮았으며 더 많은 취업통보서를 받았다. 또한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진시키는 교육은 직무탐색 활동을 증가시켰다(Eden & Aviram, 1993; Saks & Ashforth, 1999; Creed, Bloxsome & Johnston, 2001).

정선아(2004)의 연구에서는 구직기술효능감과 이력서 내용구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효능감 향상은 구직기술 연습과 정과의 관계를 보였다(김명언 외, 2003). 취업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참가를 전후하여 취업효능감을 측정한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있어서 개선효과가 있었고, 취업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성취프로그램은 참가자 특성에 따라 일부 차별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집단, 자존감이 낮은 집단 등의 경우 취업효능감의 변화량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명언 외, 2003). 온라인 취업커뮤니티 몰입에 따른 취업효능감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커뮤니티 몰입은 취업효능감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신길자, 2008). 또한, 대학 취업지원 부서에서 실시하는 진로상담프로그램도 취업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참여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사정, 진로포부, 전공선택 확신에서 더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정태욱, 2004).

### 4. 취업태도

취업태도는 취업태도 성숙도를 개념으로 현실적인 진로선택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측면인 취

업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진로란 한 개인 생애의 모든 과정으로써 대가를 받는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대인관계, 교육, 직업, 결혼, 가정생활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혜정, 2007).

Super(1955)는 이에 대해 “탐색기에서 쇠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다(송지은, 2013. 재인용). 또한,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김현옥, 1989).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해 어떤 진로방향을 설정·계획해 보고 그것에 대해 독립적으로 선택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그것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백수연, 2007).

## 5. 교육여건

대학교육의 여건은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교육이 서비스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이 교육과정이라는 공정을 거쳐 졸업생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체계로서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박건희, 2009).

엄경아(2007)는 교육서비스 품질을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대학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에게 형성된 대학에 대한 태도라고 하였다. 대학은 교육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행정시스템 등의 행정서비스,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캠퍼스설계나 분위기 등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된다(김신희, 2011).

양태식(2005)은 교육, 교수, 직원, 물리적 시설, 예산의 혜택 등의 교육서비스 품질 5개 요인을 학생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만기(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 취업지원프로

램 참여는 취업 시 직무만족과 일자리적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학교의 편의시설, 최신 교육기자재, 도서관의 최신 정보제공, 교통접근성도 물리적 환경서비스에 중요한 변수임을 연구한 내용도 있었다(황해용, 2000; 서미령, 2013).

## III. 연구방법

### 1. 가설설정

#### 1.1 국내 대학생의 취업비용

대학생의 취업비용은 대학에서 교육 이외의 지출이므로 “추가적 투자”의 성격을 지니며 Becker(1976)와 Schults(1989)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 개인 생산성은 증대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개인의 소득능력이 향상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인적자본 이론을 발전시켰다(김보인, 2009, 재인용).

대학생의 취업준비실태 관련 서진숙(1998)의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은 정보수집행동, 구직행동, 시험준비행동, 사람과 일을 통한 정보수집, 외국어 공부 등의 5개 요인으로 나누었고 학습관련 사항은 시험준비, 외국어공부 등으로 나누었다. 취업에 대비하여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기를 원하는 인문, 사회계열 강좌는 영어회화 및 영어독해 등이고 자연계열강좌로는 전산과목을 꼽고 있다. 또한 취업, 진로 등을 위해 휴학을 했거나 앞으로 휴학을 계획하는 학생들도 응답자의 47.9%에 달하고, 대학교육만으로는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학습의 유형과 그 비용에 관하여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학습을 어학학습, 실무학습, 각종 시험 준비학습으로 분류한 연구와 과외학습과 그 비용에 관해 대학생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과외학습 참여와 비용지출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전공계열과 상관이 있었고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이 과외학습 비용지출이 많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는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행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는 발달적 특성과 함께 취업준비행동 역시 시기가 변화하고 취업을 위한 취업비용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김보인, 2009,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민혜리(2001)의 연구내용 중 취업준비 과외학습 유형을 바탕으로 취업준비비용지출영역을 교육훈련 참여항목(영어회화, 토익, 제 2외국어, 자격증, 공무원시험, 직무관련, 컴퓨터, 컨설팅)과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치아교정, 성형, 피부과 진료, 의류잡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대학별 유형(전문대, 4년제 대학)과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취업비용 지출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대학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b: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전공 계열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c: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d: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e: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f: 국내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대학생의 취업효능감, 교육여건, 취업태도

Bandura(1986), Zimmerman(1989)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사회학습이론의 중심개념이면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기대나 확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취업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취업과 관련된 분야로 확장된 것으로서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설명할 수 있다. 취업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면접전형 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취업효능감이 낮은 구직자에 비해 많았다는 연구(Moynihan 외, 2003)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의 취업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직무탐색 행동의 빈도가 높았고 불안 수준이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자기효능감 수준을 증진시키는 교육은 직무탐색 활동을 증가시켰다(Eden & Aviram, 1993; Saks & Ashforth, 2000; Creed, Bloxsome & Johnston, 2001).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참여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사정, 진로포부, 전공선택 확신에서 더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정태욱, 2004).

취업태도는 취업태도 성숙도를 개념으로 현실적인 진로선택에 필요한 인지적 능력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의 감정, 주관적 반응, 기질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측면인 취업태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기학·이학주, 2000). 취업태도 성숙은 진로성숙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론들을 고찰해야 한다. Super(1955)는 이에 대해 “탐색기에서 쇠퇴기까지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였다(송지은, 2013, 재인용).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아와 환경을 인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해가는 준비의 정도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김현옥, 1989). 또한,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해 어떤 진로방향을

설정하고 계획해보고 그것에 대해 독립적으로 선택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그것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백수연, 2007).

대학교육여건에 대한 연구는 교육서비스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교육이 서비스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는 여전히 엇갈린 의견이 있지만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이 교육과정이라는 공정을 거쳐 졸업생이라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체계로서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박건희, 2009).

양태식(2005)은 교육요인, 교수요인, 직원요인, 물리적 시설요인, 예상 외 혜택요인 등의 교육서비스 품질 5개 변수를 학생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적절성, 교수진의 유능성, 존경성, 신뢰성, 상담자로서의 공감성, 취업, 시설 등의 교육서비스 품질 12가지는 학생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대학유형별(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생들의 취업효능감, 취업태도, 학교의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차이를 검증하고 취업효능감과 학교교육여건이 취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a: 국내 대학생이 인지하는 취업효능감은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b: 국내 대학생이 인지하는 취업태도는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c: 국내 대학생이 인지하는 대학교육여건은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d: 국내 대학생이 인지하는 취업효능감은 취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e: 국내 대학생이 인지하는 학교 교육여건은 취업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 2.1 주요변수의 측정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지출은 대학에서의 교육 이외의 지출이며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를 포함한다. 취업비용의 조사는 민혜리(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참여항목(영어회화, 토익, 제 2외국어, 자격증, 공무원시험, 직무관련, 컴퓨터, 컨설팅)을 토대로 취업을 위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치아교정, 성형, 피부과 진료, 의류잡화 구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취업준비비용을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우선 인구통계적인 내용으로 응답자가 소속된 대학의 유형, 전공계열, 학년, 성별, 등을 조사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입, 최근 1년간 취업을 위해 참여한 교육훈련(① 영어회화 ② 토익, 토플, 텡스 ③ 제2외국어 ④ 자격증취득 교육 ⑤ 공무원시험, 임용고시 등 국가고시 대비 교육 ⑥ 취업희망 직업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⑦ 컴퓨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⑧ 취업컨설팅)과 각 비용을 조사하였다.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질문은 전공 교과목 개설의 체계성, 교양 교과목 개설의 다양성, 전반적 수업의 충실도, 도서관 시설(장서, 열람실, 정보화)의 우수성 등으로 민혜리(2001)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설문내용을 추가하여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취업효능감의 측정은 미시간대학 사회연구소에서 제작한 Job survey의 문항과 조직효율성 진단검사 문항 등을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김보인(2009)의 검사 도구와 반경미(2014) 연구의 효능감 측정항목 20개 중에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취업에 자신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

은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나의 부족한 능력을 개발시키려고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의 4개 항목을 추출하여 설문에 사용하였다.

취업효능감은 대학교육여건 인식과 같이 5점 척도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효능감을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취업태도의 측정도구는 이기학(1997)의 “취업태도 성숙검사”의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다섯 개 하위요인 총 47문항 중에서 확신성 문항 5개 문항을 활용하였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나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잘할 자신이 있다”, “나는 노력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로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대학교육 여건 인식과 같이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2.2 자료수집 & 인구 통계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2곳과 4년제 대학 2곳의 대학생들을 2013년 9월 1주부터 2013년 12월 1주까지 설문지 550부를 대학별로 수업이 끝난 강의실에서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대학	전문대학	300	62.0
	4년제 대학	184	38.0
전공계열	컴퓨터 경영계열	134	27.7
	전기전자계열	59	12.2
	디자인계열	67	13.8
	사회계열	148	30.6
	기타	76	15.7
	합계	484	100.0
학년	1학년	67	13.8
	2학년	166	34.3
	3학년	165	34.1
	4학년	70	14.5
	기타	16	3.3
	합계	484	100.0
성별	남자	260	53.7
	여자	224	46.3
	합계	484	100.0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106	21.9
	300만원 전후	187	38.6
	400만원 전후	83	17.1
	500만원 이상	87	18.0
	무응답	21	4.3
	합계	484	100.0
그룹별 연령	21세 이하	146	30.2
	22~24세 이하	197	40.7
	25세 이상	141	29.1
	합계	484	100.0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한 484부(88%)를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과 같이 전문대생이 300명(62%), 4년제 대학생이 184부(38%)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184명(3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166명(34.3%)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취업을 앞둔 전문대생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고, 3학년은 165명(34.%)으로 나타나 2번째로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260명(53.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는 22~24세가 197명(40.7%)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21세 이하는 146명(30.2%), 25세 이상은 141명(29.1%)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교육훈련참여

설문대상자 484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 최근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표 2>와 같이 전문대생이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은 자격증취득교육, 컴퓨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취업컨설팅, 토익, 토플, 텡스와 같은 순으로 나타났고, 4년제 학생은 토익, 토플, 텡스 등 영어교육이 첫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격증취득, 영어회화, 컴퓨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4년제 학생은 토익 등 영어교육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의 교육훈련 참여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계	순위
영어회화	38(8.6%)	35(13.5%)	73	4
토익 등	51(11.6%)	99(38.1%)	150	2
제2외국어	7(1.6%)	17(6.5%)	24	8
자격증	174(39.5%)	42(16.2%)	216	1
공무원	12(2.7%)	15(5.8%)	27	7
직무관련	36(8.2%)	19(7.3%)	55	6
컴퓨터	72(16.3%)	28(10.8%)	100	3
컨설팅	51(11.6%)	5(1.9%)	56	5
총계	441	260	701	

## 2. 취업비용 차이검증

### 2.1 전문대와 4년제 학생의 취업비용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련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학교가 개설해 주기를 원하는 인문, 사회계열 강좌로 영어회화 및 영어독해를 들고 있고, 자연계열 강좌로는 전산과목을 꼽고 있다(허자영, 1996).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장원섭·김형만·옥준필, 2001)의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취업준비 방법을 정규교육과 학원수강, 독학으로 구분하고 각 대학유형별로만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전문대생 47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방법으로 정규교육이 조사인원의 61.7%, 학원수강이 23.4%, 독학이 14.9%로 나타났고 4년제 학생 85명의 경

우 정규교육이 37.6%, 학원수강이 27.1%, 독학이 35.3%로 독학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 동안 취업에 대한 비용지출 또는 예상 비용을 취업을 위한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해외연수, 교육훈련, 컨설팅, 치아교정, 피부관리, 성형, 의류잡화비용 등으로 나누어 전문대와 4년제 학생을 기준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해외연수 비용의 경우 전문대생은 평균 809만원, 4년제 학생은 1,55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도 4년제 학생이 202만원, 전문대생은 113만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났으며( $p<0.01$ ), 의류잡화비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치아교정, 피부, 성형 등의 비용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액

면에서는 4년제 학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연수, 교육훈련, 의류잡화비용 등에서는 4년제 학생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대생보다 2년의 더 긴 학창생활을 보내는 4년제 학생들의 학창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취업준비비용의 차이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연수비용의 경우 4년제 대학생 중 해외연수를 가려는 학생들은 평균 1,500만원 이상을 지불하거나 지불을 예상하고 있어 전문대생과의 취업준비비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업에 있어서 어학연수 경험 자체에 대한 변별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만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3> 대학유형별 취업비용 차이

(단위 : 만원)

대학		평균	표준편차	t	p
해외연수비용	A	809.92	843.97	-5.16	.000**
	B	1559.87	1241.22		
교육훈련비용	A	113.35	159.60	-3.13	.002**
	B	202.28	297.40		
컨설팅 비용	A	81.07	459.12	.158	.874
	B	73.96	107.32		
치아교정	A	445.67	417.06	1.36	.175
	B	366.28	271.59		
피부	A	119.31	270.19	-.396	.693
	B	134.87	185.22		
성형	A	656.31	1397.77	.698	.487
	B	505.26	787.21		
의류잡화비용	A	66.96	75.11	-3.19	.002**
	B	97.98	92.99		

\* :  $p<0.05$ , \*\* :  $p<0.01$

A : 전문대, B : 4년제대학

## 2.2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비용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위한 Scheffe/ Dunnett 검증을 실시하였다. 컴퓨터경영계열의 해외연수비용의 평균은 1,057만원, 전기전자계열은 660만원, 디자인계열은 764만원, 사회계열은 1,557만원으로 사회계열 학생의 해외연수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표 4>와 같이 해외연수비용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1$ ), 전기전자계열과 디자인계열에 비해 사회계열 학생이 해외연수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잡화비용은 컴퓨터경영계열 68만원, 전기전자계열 49만원, 디자인계열 91만원,

사회계열학생이 106만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용의 차이가( $p<0.01$ ) 있음을 보였다. 이는 민혜리(2001)의 연구에서도 전공계열과 대학생 과외비용 지출과 상관성이 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열 학생들이 컴퓨터경영계열, 전기전자계열, 디자인계열 학생들 보다 해외연수, 의류구입 등의 지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학교수업 외에 취업을 위한 해외연수, 의류잡화비용 등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교육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치아교정비용, 피부관리비용, 성형비용은 전공계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공계열별 취업준비비용 차이

(단위 :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해외 연수	A	55	1057.8	922.2	5.022/	b,c < d,e
	B	24	660.5	780.8	.001**	
	C	23	764.5	776.6		
	D	75	1481.4	1296.3		
	E	53	1557.5	1241.6		
	계	230	1240.3	1149.4		
의류 잡화	A	98	68.1	55.1	4.219/	a,b < d
	B	36	49.1	43.0	.002**	
	C	30	91.2	111.4		
	D	85	106.7	109.7		
	E	51	73.1	74.8		
	계	300	79.9	84.3		

\* :  $p<0.05$ , \*\* :  $p<0.01$

A : 컴퓨터경영계열, B : 전기전자계열, C : 디자인계열, D : 사회계열, E : 기타

## 2.3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남, 녀 학생의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차이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치아교정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p<0.05$ )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치아교정의 평균 비용은 남자

341만원보다 여자가 470만원으로 치아교정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컨설팅비용, 치아교정비용, 피부관리비용, 성형비용, 의류잡화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성별 취업준비비용 차이

(단위 : 만원)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p
치아교정	남	75	341.6	233.0
	여	66	470.0	431.2
				-2.236/
				.027*

\* :  $p < 0.05$ , \*\* :  $p < 0.01$ 

## 2.4 월평균 수입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차이검증을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의류잡화비용에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거나 예정인 학생의 가정 월 소득이 300만원 전후인 학생과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들과의 해외연수비

용과 의류잡화비용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교육훈련비용은 가정의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학생과 월 가정소득 500만원 이상의 학생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컨설팅비용, 치아교정비용, 피부관리비용, 성형비용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혜리(2001)의 연구에서도 취업을 위한 과외학습의 참여와 비용 지출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lt;표 6&gt; 월평균 수입 취업준비비용 차이

(단위 :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F/p	scheffe
해외연수	A	34	1045.3	1115.3	3.737/	b<d
	B	90	1102.0	998.7	.012*	
	C	42	1098.9	972.1		
	D	59	1659.3	1386.8		
	계	225	1239.0	1146.3		
교육훈련	A	50	92.3	115.6	3.426/	a<d
	B	111	129.8	185.7	.018*	
	C	46	198.5	344.5		
	D	59	215.0	282.6		
	계	266	153.5	237.8		
의류잡화	A	58	72.4	67.8	4.855/	b<d
	B	125	66.8	59.1	.003**	
	C	45	69.7	81.6		
	D	66	111.1	115.0		
	계	294	78.3	81.4		

\* :  $p < 0.05$ , \*\* :  $p < 0.01$ 

A : 200만원 이하, B : 300만원 전후, C : 400만원 전후, D : 500만원 이상

### 3.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대학교육여건 인식

#### 3.1 변수의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교육여건 인식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SPSS 프로그램에서 대학생이 인지하는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KMO와 Bartlett의 검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데 KMO 값이 0.9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수들의 KMO 값은 .813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비교적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 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취업효능감 항목에서 효능감 2는 잘못 적재된 값으로 나와 이를 제거하였다. 상기 <표 7>과 같이 각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을 보이고 있고 3개의 변인으로 잘 묶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별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이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분석으로 Cronbach의 알파값을 사용하였으며 취업태도 변수의 Cronbach 알파값은 .816, 취업효능감 변수의 Cronbach 알파값은 .741, 교육여건 변수의 Cronbach 알파값은 .735가 되었다. 3개의 변수에 대한 Cronbach 알파값은 모두 0.6 이상을 보이고 있어 측정문항의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요인분석

요인	변수명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분산설명력	신뢰도
취업태도	취업태도4	.809	.678	4.050/28.930	.816
	취업태도5	.775	.623		
	취업태도3	.759	.639		
	취업태도1	.721	.524		
	취업태도2	.649	.491		
취업효능감	효능감4	.783	.625	2.004/14.312	.741
	효능감3	.772	.614		
	효능감1	.737	.591		
교육여건	교육여건3	.795	.647	1.669/11.918	.735
	교육여건1	.747	.588		
	교육여건2	.702	.522		
	교육여건4	.667	.490		

#### 3.2 변수의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변수정화 과

정을 거친 후, 변수계산을 실시하여 새롭게 생성된 변수를 가지고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전체 표본은 484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8>과 같이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상관관계분석(N=484)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대학교육여건
취업태도	1		
취업효능감	.236**	1	
대학교육여건	.316**	.256**	1

\* :  $p < 0.05$ , \*\* :  $p < 0.01$

### 3.3 대학유형별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교육여건 인식의 차이

대학유형별 취업태도, 취업효능감, 교육여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별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고 설문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수를 높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로 등분산이 가정됨과 가정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취업태도는 전문대생이나 4년제 대학생이 인지하는 것은 유의확률값 .05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아 취업태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취업효능감의 경우 전문대생은 3.287, 4년제 대학생은 3.442로 4년제 대학생의 평균이 전문대

취업태도와 취업효능감의 상관계수는 .236으로 23.6%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태도와 대학교육 여건과의 상관계수는 .316으로 31.6%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다 높아 4년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5$ )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도 전문대생은 3.249, 4년제 대학생은 3.426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생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전문대생보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는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이 물리적인 학교생활의 기간에서 오는 취업프로그램, 취업지원, 멘토링 등을 학창시절에 다양하게 접할 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취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습득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장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금재호 1997)도 있듯이 대학에서 학생들의 면접이나 취업스킬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취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하겠다.

<표 9> 학교별 취업태도 차이

대학		N	평균	표준편차	t값/p값
취업태도	A	300	3.071	.563	-1.957/.051
	B	184	3.191	.704	
취업효능감	A	300	3.287	.680	-2.204/.028*
	B	184	3.442	.785	
교육여건	A	300	3.249	.632	-2.887/.004**
	B	184	3.426	.694	

\* :  $p < 0.05$ , \*\* :  $p < 0.01$

### 3.4 취업효능감, 교육여건이 취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 대학생의 취업효능감과 교육여건이 취업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대학교육여건 t값이

6.207, 유의확률 .000( $p < 0.05$ )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취업효능감도 취업태도에 t값이 3.753, 유의확률 .000( $p < 0.05$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취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대학교육여건	.258	.042	.274	6.207***	.000
취업효능감	.142	.038	.166	3.753***	.000

a. 종속변수: 취업태도 F=34.548, p=.000, Durbin-Watson=1.920

## IV. 결 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2곳과 4년제 대학 2곳의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참여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전문대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 교육, 컴퓨터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취업컨설팅, 토익, 토플, 텀스 순으로 나타났고, 4년제 대학생은 토익, 토플, 텀스 등 영어교육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는 자격증취득, 영어회화, 컴퓨터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생은 자격증취득, 4년제 대학생은 토익 등 영어교육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생의 취업비용의 차이분석에서는 해외연수비용이 전문대생은 평균 809만원, 4년제 대학생은 1,559만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도 4년제 대학생이 202만원, 전문대생은 113만원, 의료잡화비용도 전문대생은 66만원, 4년제 대학생은 97만원으로 4년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취업준비비용의 차이는 컴퓨터경영계열의 해외연수비용의 평균은 1,057만원, 전기전자계열은 660만원, 디자인계열은 764만원, 사회계열은 1,557만원으로 사회계열 학생의 해외연수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잡화비용은 컴퓨터경영계열 68만원, 전기전자계열 49만원, 디자인계열 91만원, 사회계열학생이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의 차이도 치아교정비용에서 남학생 341만원 보다 여학생이 470만원으로 치아교정비

용을 여학생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취업준비비용 차이는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의료잡화비용에서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여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보다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태도는 전문대생이나 4년제 대학생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효능감, 학교의 교육여건 인식의 경우 전문대생보다 4년제 대학생이 통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비용에서 해외어학연수비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에 있어서 어학연수 경험 자체에 대한 변별력이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만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해외 어학연수를 가기 전 사전에 더 많은 준비를 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문대생과 4년제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자체의 차이도 해외연수비용, 교육훈련비용, 의료잡화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취업효능감,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도 4년제 대학생이 전문대생보다 더 높게 조사되어 전문대생들의 취업에 대한 효능감과 학교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생의 취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전공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타 계열보다 취업을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유형별, 전공계열별, 성별, 가정 월평균 수입 비용에 따른 취업준비비용의 차이가 분명하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취업준비비용의 지출이 되지 않도록 취업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취업효능감과 대학교육여건은 취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 여건의 개선과 취업효능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전문대생은 자격증관련 교육훈련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고, 4년제 대학생은 토익 등 영어 관련 교육의 참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어 대학관계자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연구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차후, 전국 규모의 취업준비비용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실제 대학생의 취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할 필요도 있겠다.

## 참고문헌

1. 금재호(1997). 직업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연계 체제 구축 방안, 진로교육연구, Vol. No.8.
2.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3. 김병숙(2009), 대학생의 취업비용 지불의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석사학위논문.
4. 김보인(2009). 대학생의 취업비용 지불의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강순희·박성재(2002). 청년층의 학교교육과 직무의 일치, 중앙고용정보원,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6. 김명언·장재운·조성호·노연희(2003). 성취프로그램의 효과: 구직효능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6 No.2.
7. 김신희(2011). 서비스가치의 선행요인이 서비스가치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완석·김선희(2005). 커리어 상담, 서울: 시



그마프레스.

9. 김정숙(2008). 봉사-학습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김혜정(2007). 청소년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민혜리(2001). 대학생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박건희(2009). 대학 무용전공 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 지각과 행동의도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박성재(2004). 청년층의 취업준비 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 직업훈련과 자격증취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박성재·반정호(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pp. 29-50.
16.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pp. 117-139.
17. 반경미(2014). 전문대생 취업태도성숙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백수연(2007).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이 취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서미령(2013). 학생들의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통한 대학교육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한양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서진숙(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송지은(2013). 대학생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태도성숙도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신길자(2008). 온라인 취업커뮤니티 몰입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엄경아(2007). 대학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학형태와 인구통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양태식(2005). 대학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5.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취업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12(1), 127-136.
27. 이만기(2010). 대졸자의 일자리 적합과 직무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연구 29권 4호 pp.245~266.
28. 이태기(1995). 자아개념과 진로성취도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임창희(2010). 과거성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정보연구 29권 1호 pp.49~78
30. 장원섭·김형만·옥준필(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 정선아(2004). 전문대생의 구직효능감과 이력서 작성 수준간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정태욱(2004). 전문 대학생의 취업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효과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조형래(2011). 진로교육 운영방법이 대학생 취업태도 및 진로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34. 한국경제(2007) 대학생, 해외 어학연수 예상 비용 1천524만원. 2007년 8.13일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81388587>
35. 황해용(2000). 대학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K대학교 2 캠퍼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허자영(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Bandura, A (1986).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38. Becker, G. S.(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 Betz N. & Luzzo, D.(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CDMS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pp. 313-328.
40. Creed, P.A, Bloxsome, T.D., & Johnston, K. (2001).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utcomes for unemployed individuals attending occupational skills training programs. *Community, Work & Family*, 4, 3, pp. 285-303.
41. Eden, D. & Aviram, A. (1993). Self 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2. Kanfer, R., & Hulin, C. L.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 off. *Personnel Psychology*, 38(4), 835-847.
43. Lisa M. Moynihan, Mark V. Roehling, Marcie A. LePine, Wendy R. Boswell(200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Job Search Self-Efficacy, Job Interviews, and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Vol 18, Issue 2, pp 207-233
44. Price, R. H., Van Ryn, M., & Vinokur, A, D.(1992). Impact of a preventive job search intervention on the likelihood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8-167.
45. Saks, A. M & Ashforth, B. E.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 and job search behavior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d. 54, pp. 335-349.
46. Schultz, T.(1989). *Educational and Population Quality in G. Psacharopoulos, Economics of Education: Research and Studies*. Pergamon Press.
47.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48. Zimmerman, B. J, A social cognitive view of self-regulated academic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1 No3, 1989, pp.320-339.

##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cost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 for Job-seeking.

Chung, Bhum-Suk\* · Jeong, Hwa-Min\*\*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job attitude and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Nowadays, many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spend a big money improving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such as studying on foreign language, getting various kinds of certificates and tooth correction, clothing etc. for employment intervie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and Job attitude of the 484 student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with SPSS 12.0 program by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ssessment, correlation test, t-test, one way ANOVA.

The university students paid more costs of employment preparation such as a language training abroad, a private training, and clothing than the college students. Also, Allied social science students paid more costs of the language training abroad, and clothing than allied computer science and allied design students. The female students paid more money than male students for tooth correction. The costs of language training abroad, private training and clothing are affected the stud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of a home.

Regarding the job attitude of students, the university students are feeling more positive than the college students of the employment efficacy and cognition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As result, the differences in the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by the university type, faculty major course, their sex,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a home.

The student's employment-efficacy and cognition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are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college students.

So, to improve the job attitude, developing their ability for employment preparation,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arranged in school and continuous researches are needed.

Key Words: Job attitude, Cost of employment preparation, Employment-efficacy

---

\* Professor, Dept. of Tax & Accounting, Yuhan University, cbs622@yuhan.ac.kr

\*\* Plural Professor, Ph.D.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Yuhan University, vivahyatt@hotmail.com

